“新 전법교재 ‘실용·스토리텔링’ 담아야”

교불련 전법교재 편찬위 워크숍서
심혜인 교수, 대학생 인식조사 발표
7월 대불련 캠프서 126명 설문조사
심리치유, 전통문화 등 불교 기대점
스토리텔링·체험 등 교육에 활용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8월 11일 대학생전법교재 편찬위원회 출범 및 기념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학생과 청년들의 눈높이 맞춤형 전법교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실용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기법, 멀티미디어 연동 등이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혜인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8월 11일 서울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위원회 출범 및 기념 워크숍에서 ‘대학생의 종교·불교인식과 불교입문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심 교수는 7월 25~27일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최 ‘대학생 불자 영캠프’ 참여 대학생 불자 126명(남학생 54명·여학생 68명·무응답 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학생 종교·불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불련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응답 대학생 중 78.6%가 ‘정신건강 개선’을 불교에 기대하는 최우선 가치로 꼽았고(중복 응답) 이어 윤리적 가치 실현(43.7%), 전통문화 보존(4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대학생들의 종교 인식은 전통적 종교관에서 실용적이고 개인 맞춤형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도 “불교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심리적 웰빙과 문화적 정체성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불교 교리나 사상에 접근하는 방식도 이전의 일방적 이론 수업을 선호하기보다 구체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실천 및 일상 적용을 대학생들은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 생애’에 대한 접근이다.

부처님 생애에 관한 관심사 유무를 묻는 질문에 88.1%(111명)가 ‘관심이 많다’고 했다. 관심 있는 부처님 생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깨달음 50.8%(64명) △마지막 35.7%(45명) △고행과 수행 26.2%(33명) △출가 21.4%(27명) △최초 설법 21.4% (27명) △제자와 공동체 이야기 21.4%(27명) △잘 모르겠다11.4%(14명) △기타 1.6%(2명) 순이었다.

심 교수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아예 몰라서 웹툰, 애니메이션처럼 요약하면 좋겠다’는 요청은 젊은 세대의 정보 수용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단편적인 교리나 개념보다 연결된 이야기 형태의 정보를 선호한다”며 “이는 부처님의 삶을 하나의 완성된 서사로 이해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불교수행과 학습은 사찰음식 배우기와 만들기(55.4%), 걷기명상(44.6%), 예불과 공양(34.7%) 등 일상생활과 연결 가능한 실용적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심 교수는 “학생들은 실습과 체험 프로그램(70.8%), SNS와 커뮤니티(51.7%), 상담과 멘토링(36.7%), 온라인 콘텐츠(27.5%) 등을 통한 접근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불교 입문서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서사적 구성 △체험과 실습을 동반한 참여형 콘텐츠 △개인 상황에 맞춘 상담과 멘토링 요소 △디지털 미디어와 연동된 멀티플랫폼 접근 등을 기반해 개발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이날 워크숍에서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새로 발간할 전법교재가 “수많은 입문서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회장은 “교불련의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경전공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법교재를 엮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불교경전 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이드 교재 ‘불교 경전 지도(Map of Buddhist Scriptures)’를 스스로 찾아가는 부처님 세상은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조계종 제5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 기금 1000만원 쾌척했다. 기금은 월정사 사회문화국장 지철 스님(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이 주지 정념 스님을 대신해 전달했다.

조계종연구소, ‘화쟁’ 기반 사회갈등연구 첫발

8월 13일 1차 학술세미나
‘해방 80주년 불교사 현안 연구’



올해 4월 출범한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가 화쟁 사상에 기반한 사회갈등연구의 첫발을 내딛었다.

조계종연구소는 8월 13일 서울 전법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해방 80주년 기념 불교사 현안 연구-해방 전후 불교계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화쟁에 기반한 사회갈등연구’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원철 스님은 인사말에서 “조계종이 직면한 한국불교사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선정하고, 객관적 자료의 발굴과 학술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전통계율 복원과 교단 재편, 대중 포교 방식 혁신의 의의와 한계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제에서 이창익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해방 전후 불교계의 일제 잔재 청산과 전통 계승 문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일본불교의 조선 포교 역사를 살피고 사찰령 제정과 조선불교의 식민화 과정을 짚었다. 또 일본불교 제도 이식이 남긴 구조적 변화와 총독부의 육식처대 허용과 같은 생활 양식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해방 전후 한국불교 교단의 통합과 재편’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해방 직후 전국승려대회에서 식민지 불교제도를 폐지하고 ‘조선불교’로 재출범했으나, 대다수를 차지한 대처승과 비구승 간 갈등이 심화되며 1960년대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해방 전후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발표했다. 한용운·백용성 스님 등 근대 불교 개혁가들의 사상과 실천을 조명하고, 해방 후 광덕 스님의 불광운동, 신소천의 금강경 독송운동, 천태종·진각종 창종 등 대중화 흐름을 분석했다.

논평자로는 이종수 국립순천대 교수, 김성연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가 나섰다.

조계종연구소는 이날 발표된 주제들을 학술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올해 말 2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화쟁 사상에 기반한 사회갈등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

불교상담개발원, 8월 10일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종봉 스님)이 8월 10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불교상담개발원 내에서 ‘제11회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서울시 종교계 자살예방사업 ‘살(자)사(랑하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위로법회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불교·천주교·원불교·기독교 등 4대 종단이 협력해 온 종교 기반 자살예방사업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2015년 첫해부터 이 프로젝트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왔으며 올해로 11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자살 유가족과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회는 불교 전통의식, 영가위로법문, 불교시식, 영가에게 편지쓰기, 헌화의식, 사찰음식 나눔 행사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기도를 통해 고인을 기리고 생존자들의 삶을 응원했다.

법주로 나선 통담선원 주지 선업 스님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 공모

조계종 포교부, 8월 29일까지
‘교리 · 수행법 활용’ 주제로

조계종 포교부(부장 남전 스님)가 미래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데 기여하고자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포교부는 ‘불교 교리와 수행법을 활용한 청소년 인성·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주제로 8월 29일까지 공모전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며 직접 개발, 혹은 공동 개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참가 신청신청서 및 지도자 지침서와 참가자 교재 등이 포함된 청소년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사전 사후 효과성 검증 결과가 포함돼야 한다.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메일(rosemay@wehago.com)로 제출하면 된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福·병원전법단 전문인재 양성 MOU

8월 11일, 업무협약 맺고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 추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조계종 포교부 병원전법단(단장 지인 스님)이 8월 11일 재단 임원실에서 병원임상교육 전문 인재 양성과 불교적 자원봉사 문화의 제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은 자비와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병원전법단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며 자원봉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병원임상교육 공동 진행 △자원봉사자 모집 및 VMS 인증을 통한 체계적 관리 △병원봉사자 활동 관련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